

라고 말했다. 과학이 보편적 가치 판단을 내리도록 허용하면 도덕성을 정의 내릴 수도 있다. 낙태를 예를 들어, 과학은 언제 심장 박동이 시작되는지, 태아가 임신 기간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심지어는 성별까지 알려줄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기를 낙태하는 것이 도덕적인지 아닌지를 말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이는 결국 개인의 가치 판단과 도덕규범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과학이 도덕적 법체계를 강제하기 위한 정부의 어떤 행동에서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행동은 소수의 도덕과 가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강요되는 결과를 낳는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개인은 다른 사람의 가치보다 자신의 가치와 선호를 따르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과학의 도덕 정당성에 관한 내용에 반대했다. 모든 과학적 연구의 결과에는 해석이 필요하며 모든 해석은 필연적으로 주관적이다. 결과에 대한 해석은 가치 판단과 도덕규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과학이 도덕성을 결정짓는다면 과학은 과학의 특성이 아닌 종교의 특성을 갖게 될 것이다.

과학이 권력과 결합했을 때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히틀러가 "과학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과학은 무엇이 진실인지 추론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라 주장한 것처럼 말이다. 과학자들이 과학적 방법에서 멀어질수록, 그들은 과학을 더 훼손하고 선택을 제한하고 인간의 자유를 파괴하며 실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을 높인다. 과학은 전화기의 원리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는 절대 말해줄 수 없다는 걸 기억하자.

번역: 김태현

출처: [Why the Bastardization of the Scientific Method Is so Dangerous - 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 \(fee.org\)](https://www.fee.org/why-the-bastardization-of-the-scientific-method-is-so-dangerous/)